

2017 대림



내 영혼이 주를 찬송하며 나를 구하신
하느님께 내 마음 기뻐 뛰노나니, 당신
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다.

사랑하는 자매들에게

이 대림 시기를 기쁨으로부터 출발하여 방향짓고자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교황 권고 “복음의 기쁨”에서 우리에게, 기쁨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중심으로 삼을 것을 호소하셨습니다. “복음의 기쁨은 예수님과 만나는 이들의 마음과 삶 전체를 가득 채웁니다”(복음의 기쁨, 1 항). 처음 이 구절을 읽었을 때 저는 매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가득 채워야 합니다”라거나 “때로는”이라고 말하지 않고, “가득 채웁니다”라고 말합니다. 요즘 말로 “맞지? 아니면, 맞지?”라고 할 때처럼 분명한 선언입니다. 예수님과 만남이 있다면 그것은 기쁨으로 가득 채웁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자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가득 채우는 것은 복음의 기쁨인가? 우리가 복음의 기쁨이 아니라 때로 우리의 삶을 더 충족시켜 주는 다른 것들을 찾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예를 들어 염려, 고민, 요구, 완벽주의... 우리 각자는 우리 자신의 “기생충들”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작은 훈련을 한다면 우리는 “복음의 기쁨”을 회복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쁨이 예수님과 인격적 만남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어떤 분이 우리 삶을 가득 채우고 새롭게 하시는 데에서 오는 것이라면, 대림 시기는 이 체험과 이 기쁨에 우리 자신을 열어 놓을 특별한 시기입니다.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하느님의 기쁨. 그 하느님의 역동은 점점 더 가까이 계시는 데에 있습니다.

구세주께서 오심을 희망으로 기다리는 기쁨에 자신을 열어 놓고 이 사순 시기를 살도록 합시다. 하느님은 “단조로움”을 모르시며 “반복”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성탄 대축일에 대한 우리의 준비는 단조로운 정신을, 우리를 우리 주위의 현실에 대해 귀멀게 하는 것을 멀리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팔이 우리 형제들을 끌어안을

때에, 우리 어머니 성모님은 우리의 팔이 주님을 위한 구유가 되도록 도와 주실
것입니다.

자매의 사랑으로 기도를 보내며,



총장 M^a Asunción González, O.P. 수녀